

쿠팡이 불지핀 IPO 열기... 티몬·11번가 줄줄이 '증시 노크'

티몬, 상장 절차 돌입 본격화
3050억 상당 유상증자 완료
상장 성공엔 '국내 1호' 타이틀
이커머스 증시입성 경쟁 접화



이진원 티몬 대표이사.

/티몬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추진에 이어 티몬이 기업공개(IPO)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커머스(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쿠팡 상장을 계기로 비상장 이커머스 업체들의 증시 입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해 4월 미래에셋대우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티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상장 전 지분투자를 통해 약 305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한 바 있다. PSA컨소시엄이 국내 기관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255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기존 최대주인 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KKR)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티몬은 해당 투자에 대해 회사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티몬은 초·분 단위로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방식인 '타임커머스' 서비스를 전환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전년 대비 47% 늘고, 10대 연령 가입은 3배가량 증가하는 등 고객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또 프리미엄 멤버십 '슈퍼세이프' 회원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회원 매출 5.5배, 건당 구매 금액도 3배 넘게 올랐다.

티몬이 상장 성공한다면 국내 '이

커머스 업체 1호' 상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쿠팡의 경우 상장 주체가 미국 모회사 '쿠팡INC'이기 때문이다. 티몬이 국내 상장 스타트를 먼저 끊는다면 이커머스 기업들의 행보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 대다수 전망이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쿠팡이 상장을 준비함에 따라 다른 비상장 이커머스 업체들의 상장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티몬인데, 지난해 4월 미래에셋대우를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한 뒤 올해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1번가 역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IPO 시점을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2018년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당시 2023년까지 상장을 통한 투자 회수를 약속했고, 최근 모회사 SK텔레콤이 아마존과 3000억원 규모의 지분 참여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 역시 상장을 앞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선 상장에 따른 이커머스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재평가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해당 업체들의 생존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사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작년 161조원에서 2025년 270조원으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온라인 소비 비중은 작년 33%에서 2025년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쿠팡이 가져가는 시장 못지 않게 새로 열리는 시장도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쿠팡 상장이 시장 경쟁을 더욱 높여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경쟁 강도 상승은 시장 재편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재편된 시장 하에서 살아남은 사업자들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계인 기자 yj1208@metroseoul.co.kr

최정우 포스코 회장 "무재해 현장 만들 것" 기아·현대로템, 중동서 'K-방산' 알린다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안전 최우선 반영" 고개 숙여 사과
"사고 원인 시설 노후화, 개선할 것"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한 최 회장은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며 "안전을 경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매번 사과와 대책만 발표하는데 사고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시설 노후화와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포스코는 5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많다. 가장 큰 위험이 노후화된 시설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많은 이유는 저희의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 17일 안전사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당시 최 회장은 "포스코는 이전부터 안전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안전 설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특단의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는 지난해 위험개소 작업자들에게 1300여대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를 1400여대 추가 배포하기로 했다. 스마트워치는 현장 근로자의 넘어짐, 심박 이상, 추락 등 신체 이상이 실시간 감지되면 주변 동료들에게 즉각 구조신호를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보내 구조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외에도 제철소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CCTV 및 과속단속카메라 13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은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은 위험 여부에 따라 외주화를 결정하지 않고 생산과 직결되는 설비를 포스코가 직영으로 하고 있다"며 "식물, 가스 같은 중요한 위험은 오히려 회사가 직영으로 직접 수행하고, 생산 및 부대 작업은 협력사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회사에서는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여러 가지 시설 투자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다른 CEO들도 사과와 함께 산업재해 최소화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먼트서비스 대표는 "고인이 된 장덕준 씨와 유족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무현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

표 등 건설 3사 대표들은 다수의 사망 및 부상 사고로 인한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산재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령에 매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 한 대표는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잘 일어났다"며 "표준 작업에 의한 작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작업자가 많다"고 근로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불안전 행동으로 추락했다더라도 방지망이 있으면 안 돌아가셨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불안한 행동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사장은 "작업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정형화돼있는 작업이 아니고 비정형화돼있는 작업이 많다"며 "표준화가 되어 있어도 비표준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코 작업자의 행동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동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출격
기아, 소형전술차량 콘셉트카 2종
현대로템, 장애물개척전차 등 선보



기아 선보인 소형전술차량 콘셉트카 4인승 카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로템이 세계 방위산업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동시장 공략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IDEX 2021'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 기아는 차세대 소형전술차량의 콘셉트카 2종을 최초 공개했으며, 현대로템은 K2전차를 비롯해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를 선보였다.

기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4인승 카고'와 '베어사시' 등 차세대 소형전술차량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주요 방산 시장인 아중동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콘셉트카 2종은 기아가 운영 중인 소형전술차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7톤 급 차량 수준의 프레임 강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험난한 전장에서도 끄떡없는 내구성을 자랑한다. 최고 출력 225마력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렸다. 4인승 카고는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기 운반이 가능한 적재함을 장착해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 베어사시는 차량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프레임과 엔진 등 파워트레인만 장착돼 있는 차량이다. 확장성이 장점으로 장갑차를 비롯해 여러 장비로 개발 가능하다.

현대로템은 K2전차와 장애물개척전차를 비롯해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차량 'HR-세르파(HR-S HERPA)'도 함께 선보이며 수주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전자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K2전차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

한다. 중동형 K2전차 모형을 전시하고 해당 지역 군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기술력을 알린다. 중동형 K2전차는 사막과 같이 고온의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K2전차를 개량한 차량으로 엔진의 냉각성을 향상시키고 고온용 폐도를 적용해 중동의 고온환경에서도 기동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해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무인차량인 HR-세르파를 선보이고 글로벌 방산업체들과의 무인, 방호 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협업 기회를 모색한다. HR-세르파는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구동방식의 다목적 무인차량으로서 화력지원, 감시정찰, 물자수송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열화가 가능하다. 원격조종 기능과 차량 앞의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능력을 갖췄으며 자율주행 기능도 적용됐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참가가 한국군에 탁월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아 군용차량의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IDEX 방산전시회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 199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기아는 2015년부터 참가를 이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